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한 유형인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다보스포럼처럼 널리 알려진 국제포럼을 공공외교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자국이 직접 이러한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포럼의 육성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한다.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가운데,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포럼으로는 '제주포럼'을 들 수 있다. 정부는 포럼외교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갖고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제주포럼에 대한 트랙1.5 형식의 강화, 대통령의 참석 관례화 등 다양한 전략적 포석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국제포럼의 육성은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 개원8주년 기념세미나(2014.3.28.) 발표자료

목 차

1. 소프트파워와 포럼외교 개념의 검토
 - 가. 지식과 네트워크의 소프트파워
 - 나. 공공외교로서의 포럼외교
 - 다. 포럼의 컨셉: 다중이해관계자 이론
2. 국내외 대표적 국제포럼의 현황
 - 가. 다보스포럼
 - 나. 보아오포럼
 - 다. 국내외 국제포럼
3. 제주포럼의 현황 및 과제
 - 가. 제주포럼의 현황
 - 나. 제주포럼의 과제
4. 제주포럼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 가. 다보스·보아오 포럼의 소프트파워적 함의
 - 나. 국가적 차원의 제주포럼 육성
 - 다.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 관례화
 - 라. 포럼외교의 활성화
 - 마. 트랙1.5 형식의 가미

1. 소프트파워와 포럼외교 개념의 검토

가. 지식과 네트워크의 소프트파워

- 조지프 나이(Joseph S. Nye)에 의하면, 소프트파워(soft power)란 ‘강제나 보상 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을 말함. 소프트파워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능력이고, 국가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반을 두는 권력이라 할 수 있음.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비물질적 변수’에 대한 강조와 함께,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 자원에서 우리나라오는 권력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조지프 나이는 21세기 세계정치를 3차원 체스게임에 비유함. 맨 위의 체스판에서는 단극적인 군사력 게임이 벌어지고, 중간인 체스판에서는 다극적인 경제력 게임이 벌어짐. 맨 아래의 체스판에서는 테러·국제범죄·기후 변화·전염병 확산 등의 초국가적 이슈들이 전개되는데, 여기서는 단극이나 다극을 넘어 매우 광범위한 권력 분산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복합적인 게임의 양상이 드러남. 국제사회의 성숙과 정보화에 따른 지식과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21세기 세계 정치의 체스판은 3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임 (Nye, 2004).
-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조지프 나이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하드파워(hard power)처럼 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완력’ 보다는 소프트파워처럼 비물질적 자원에 의지하여 ‘끌어당기는 매력’이, 노드(node)들을 불러모아 네트워크의 세를 불리는 데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임(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08). 이른바 ‘네트워크 파워’는 네트워크상에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 요충지를 차지하고 ‘통(通)’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권력임. 이는 일종의 스위처(switcher) 또는 조정자(coordinator)가 네트워크상에서 발휘하는 권력이라 할 수 있음(이상배, 2009).

나. 공공외교로서의 포럼외교

-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의 외교로 재등장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는 문화외교, 지식외교, 미디어외교 등의 형태

가 있음. ‘지식외교(knowledge diplomacy)’는 지식의 전파와 공유를 통해 범지역적·범세계적 지식 공동체,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지식 외교의 한 유형으로서, 주요 국제 문제들을 어젠다로 설정해 다양한 국제회의, 세미나 등 회의체를 통해서 국제적인 지식연대와 합의를 구축해 나가는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음.

- ‘포럼’의 사전적 의미는 ‘토론의 장소’ 또는 ‘토론을 위한 모임’임. 토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식’이며, 포럼 참가자들은 특정 주제나 이슈,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지식의 형태로 전달함. ‘포럼외교’란 곧 회의체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수단 또는 매체(medium)로 사용하는 공공외교의 한 형태를 지칭함.

○ 공공외교의 매체로서 국제포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첫째, 포럼은 개방적·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특정 이슈나 어젠다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의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음.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의 차이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외교의 중요한 출발점임.
- 둘째, 포럼을 주관하고 조직하는 입장에서는 포럼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발신할 수 있음. 어젠다가 국제적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클수록 포럼 조직자의 어젠다 설정력(agenda setting power)은 보다 큰 공공외교적 의미를 갖게 됨.
- 셋째, 포럼의 회의체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특정 포럼이 지속성을 가질 경우 국가 간 교류를 심화·확대하는 장으로 기능하게 됨. 이는 또 제도화된 정부 또는 민간 사이의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넷째, 포럼을 통해서 참가자들 간 합의적인 지식(consensual knowledge)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된 지식의 축적은 궁극적으로 ‘지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현안 이슈들을 둘러싼 지식공동체의 존재는 합의를 통한 갈등관리, 위기관리, 문제해결에 유리한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의미를 지님(김태환, 2014).

*지식외교의
한 유형으로서,
주요 국제 문제들을
어젠다로 설정해
다양한 국제회의,
세미나 등 회의체를
통해서 국제적인
지식연대와 합의를
구축해 나가는
‘포럼외교(forum
diplomacy)’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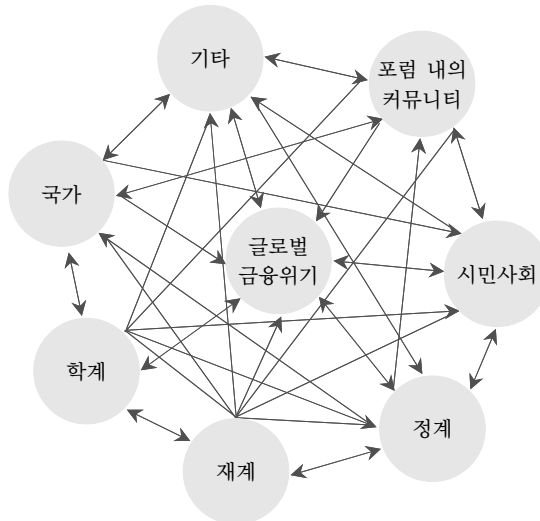
다. 포럼의 컨셉: 다중이해관계자 이론

- ‘다보스포럼(Davos Forum)’을 창설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포럼의 컨셉으로 ‘다중이해관계자 이론(Multistakeholder Theory)’을 제시함.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슈밥의 목표였음**

- 슈밥이 1971년에 다보스포럼의 전신인 ‘유럽 경영 심포지엄(European Management Symposium)’을 기획하면서 기초로 삼은 ‘다중이해관계자 이론’은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즉 소비자·종업원·협력업체·정부·시민사회 등의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함. 슈밥이 그의 책 『기계공학적 현대 기업 경영(Moderne Unternehmensführung im Maschinenbau)』에서 처음 소개한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임.
- 원래 다중이해관계자 이론의 중심에는 이처럼 기업이 있었음. 그러나 이 이론이 포럼을 설계하는 데에 사용되면서부터는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중심에 이슈(이를테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어가고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도 연결고리가 생기는 등의 변화를 겪음.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슈밥의 목표였음. 오늘날 다보스포럼 내에 존재하는 각종 커뮤니티들뿐만 아니라 정계·재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네트워크를 형성함(문정인·이재영, 2014).

<그림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슈에 따른 네트워크



* 출처: 문정인·이재영(2014), 『다보스 이야기』, p.50

2. 국내외 대표적 국제포럼의 현황

가. 다보스포럼

- 연차총회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포럼임. 다보스포럼은 스위스에 기반을 둔 민간의 독립재단이면서 사실상 국제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다보스포럼의 미션은 글로벌 공동체 건설에 창조적 동력을 제공하고 지구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촉매제가 된다는 것임.
- 다보스는 스위스 동부의 그라우빈덴 주에 위치한 스키 휴양지로, 인구가 1만여 명에 불과한 알프스기슭의 외진 마을임. 이러한 다보스에서 슈밥이 1971년에 처음 시도한 ‘유럽 경영 심포지엄’이 성공을 거두자, 같은 해에 이를 ‘유럽 경영 포럼(European Management Forum)’으로 이름을 바꾸고 비영리재단으로 정식 등록함.
- ‘유럽 경영 포럼’은 초기에는 주로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경영 기법을 따라잡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되었지만, 1973년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 붕괴와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1974년에는 경영 외에 경제·사회 이슈들로 논의의 초점을 넓히고 정치 지도자들도 처음으로 초청함. 1976년에는 1,000개의 세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멤버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포럼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짐. 지역별 회의를 여는가 하면, 1979년에는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 Report)’를 발간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식 허브(knowledge hub)’로 자리 잡기 시작함.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유럽 경영 포럼’은 1987년에 ‘세계경제포럼’으로 개칭하고, 국제적 갈등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추구하는 등 그 비전과 활동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감.
- 매년 1월의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이후에 남미·아프리카·동아시아·인도·유럽·중동에서 개최되는 6개 지역회의에서는 연차총회에서 제기된 테마 가운데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룸. 다보스포럼은 또 매년 9월 중국에서 ‘뉴 챔피언 연례회의(The Annual Meeting of the New Champions)’라는 일명 ‘하계 다보스포럼’도 개최하고 있음. 이처럼 지역단위 모임의 활성화와 각종 이벤트 개최로 인해 다보스포럼은 사실상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음. 여기에다 재정 건전성까지 더해져 다보스포럼은 어느 국제기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 2013년도의 경우 다보스포럼의 고정 수입인 회비만도 1억 3,300만 스위스 프랑

*연차총회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은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포럼임.
스위스에 기반을 둔
민간의
독립재단이면서
사실상 국제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공식 세션만도

250여 개에 달하는

다보스포럼에서

관심을 모은

주요 의제들은 G8과

G20 등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경향이 있음

(약 1,596억 원)으로 총수입의 71%에 달함.

- 다보스포럼은 100여 개국에서 2,500여 명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매년 1월 마지막 주의 4일 동안(수·목·금·토) 최고 수준의 네트워킹의 장이 됨. 다보스포럼이 초청하는 250명의 정상급 정치 지도자·국제기구 수장과 함께, 세계적 기업 CEO들은 금융위기, 양극화, 일자리창출, 기후변화 등 글로벌·지역·경제·산업 및 비즈니스·미래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함. 다보스포럼은 정치인을 초청할 경우에는 현안 이슈 해결에 영향력을 지닌 현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함. 공식 세션만도 250여 개에 달하는 다보스포럼에서 관심을 모은 주요 의제들은 G8과 G20 등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경향이 있음.
- 다보스포럼은 스위스 제네바의 근교 콜로니(Colony)에 본부를 두고 뉴욕, 베이징, 도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다보스포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재단 이사회는 슈밥을 포함해 정계·재계·학계·국제기구를 대표하는 22명으로 구성됨. 다보스포럼의 내부조직으로는 슈밥 회장을 필두로 하는 상무 이사진 아래 디렉터들이 있고, 이들과 함께 60여 개국의 다양한 출신 배경과 경력을 지닌 스태프 550명이 포럼의 실무를 담당함.
- 다보스포럼이 회원제를 도입한 후 회원들 간에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적 소모임인 커뮤니티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남. 1997년에는 이들 중 몇몇을 엄선해 ‘파트너’ 개념을 도입하자 커뮤니티 활동은 더욱 활발해짐. 오늘날에는 100개의 ‘전략적 파트너’와 320개의 ‘산업 파트너’ 커뮤니티들로 늘어남.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지식생산과 문제해결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보스포럼은 다중이해관계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함.
 - 이들 가운데 핵심 커뮤니티가 ‘글로벌 어젠다 위원회(GAC)’임. GAC에는 각각 15~20명으로 구성된 88개의 소위원회에 모두 1,500여 명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속해 있음. GAC는 매년 11월에 UAE에서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이라 불리는 ‘글로벌 어젠다 정상회의’를 열어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듬해 1월의 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내놓을 의제가 다듬어짐. 또 다보스포럼 커뮤니티들은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12가지 기준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비롯, 150개의 보고서를 해마다 발간함.
- 한편 초청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 다보스포럼에 대해 ‘소수의 가진

자들만의 축제’, ‘세계화의 침범’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이러한 비판을 수렴해서 다보스포럼은 2001년부터 NGO나 시민사회의 운동가들도 함께 포럼에 초청하고 있음. 다보스포럼은 2003년 이래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포럼(Open Forum)’을 연차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다보스 한복판의 학교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2014년 1월 22일~25일에 열린 제44차 다보스포럼의 대주제는 ‘세계의 재편: 사회, 정치, 기업에 대한 영향(The Reshaping of the World: Consequences for Society, Politics and Business)’임. 이는 세계의 5대 리스크(국가간 분쟁 확산, 소득 불균형 확대, 구조적 실업 증가, 기후변화 심화, 사이버 위협 확대)를 인지하고 5대 변화요인(초연결 사회의 도래, 수직적 의사결정의 네트워크화된 수평화, 지구촌 거버넌스의 변화, 아시아의 부상, 지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의 재편에 대비하자는 것임. 이러한 ‘세계의 재편’을 위해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포괄적 성장의 성취 △파괴적 혁신의 포용 △사회의 새로운 기대들의 충족 △90억 명의 지속가능한 세계 등 4개 테마를 골간으로 내걸었음(현대경제연구원, 2014).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60개 이상의 세션이 스트리밍 형태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장의 분위기가 전달되는 등 ‘디지털 다보스포럼’도 점차 활성화돼 가고 있음을 보여줌(연합뉴스, 2014년 1월 22일 자).

나. 보아오포럼

- 매년 4월 중국 하이난성(海南省)의 휴양지 보아오(博鳌)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의 정식명칭은 ‘아시아를 위한 보아오포럼(Boao Forum for Asia: BFA)’임. 명칭에 ‘아시아’가 들어가 있듯이 보아오포럼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 협력을 주된 의제로 다뤄왔음. 근래 들어 포럼 참가 대상이 크게 확대돼 아프리카·유럽·남미 등 다른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에까지 논의의 폭을 확장하면서 보아오포럼은 세계적인 포럼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보아오는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섬(海南島)의 동해안 중하이시(瓊海市)에 속하는 진(鎮: 우리나라의 읍 정도에 해당)으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어업과 농업에 종사한 작은 어촌에 지나지 않았음. 남중국해에 접하는 이곳에서 보아오포럼이 열려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30여 개의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서고, 컨벤션센터와 온천·골프장 등을 갖추으로써 중국 유수의 관광지로 탈바꿈함.

- 1996년 말에 호크(B. Hawke) 전 호주 총리, 라모스(F. V. Ramos) 전 필

**명칭에 ‘아시아’가
들어가 있듯이**

보아오포럼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
협력을 주된 의제로
다뤘었음.**

**근래 들어 다른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에까지
논의의 폭을 확장**

**보아오포럼 창설에
대한 구상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 속에
아시아가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아시아인에 의해
주도되고 아시아인의
시각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전체의 포럼이
부재하다는 각성에서
출발함**

리핀 대통령, 호소카와(M. Hosokawa) 전 일본 총리가 ‘아시아판 다보스포럼’ 창설 아이디어를 냈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로 논의가 중단됨. 그러다가 이들은 1998년 9월에 다시 이를 정식으로 제안함. 1999년 10월 호크 전 총리와 라모스 전 대통령이 중국의 후진타오 당시 부주석을 면담한 후, 중국은 호주와 함께 포럼 창설 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아오포럼 포럼 장소로 선정하면서 2001년 2월 창립총회를 갖게 됨. 보아오포럼 창설에 대한 구상은 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 속에 EU와 NAFTA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의 가속화에 아시아가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아시아인에 의해 주도되고 아시아인의 시각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전체의 포럼이 부재하다는 각성에서 출발함.

- 보아오포럼 출범 당시 창립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 중국·일본·호주·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26개국임. 보아오포럼의 제1차 연례총회는 2002년 4월에 개최됐는데, 이후 보아오가 영구 개최지로 결정됨. 보아오가 개최지로 정해진 것은 당시 포럼 설립을 논의하던 당사자들이 주로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고, 관광 진흥을 위한 하이난성의 이해에도 부합했기 때문임(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09; 외교부 보도자료, 2006년 4월 21일 자).
- 보아오포럼이 다루는 주제는 아시아의 경제통합 촉진과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개발, 에너지·자원 문제, 기후변화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이슈와 보편적인 현안으로 확장되고 있음. 보아오포럼은 매년 4월의 연례총회 외에도 금융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회의를 세계 각지에서 수시로 개최하거나 후원함. 또 보아오포럼은 매년 아시아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행정효율 △기반시설 △거시경제 △사회발전 수준 △인력자원 및 혁신 등 5개 지표를 지수화해 경쟁력 순위를 발표함.
- 정치인들이 창설을 주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비영리 민간기구 형태인 보아오포럼은 사무국을 베이징에 두고 있음. 참석 대상과 어젠다가 아시아를 뛰어넘음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된 보아오포럼 이사진에도 골드만 삭스 CEO 출신으로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한 헨리 폴슨(Henry Paulson)과 볼보(Volvo)그룹 회장을 지낸 스웨덴의 라이프 요한손(Leif Johansson) 등 비 아시아인들이 포함됨. 지난해에는 최태원 SK회장의 후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규로 보아오포럼 이사에 선임됨.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현재 보아오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음.
- 참석자가 초기의 1,000여 명에서 점차 늘어 2013년 4월 6일~8일에 열

린 제12차 보아오포럼에는 43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함. 물론 중국 측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세계 도처에서 정관계·경제계·학계·언론계 등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등 11개국 정상과 라가르드 IMF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헤지펀드 거물 조지 소로스 등 명사들도 자리를 함께 함(연합뉴스, 2013년 4월 6일 자). 중국의 우수한 재계 대표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보아오포럼에 대해 ‘관시(關係) 비즈니스’의 연장이거나 ‘금권교역(金權交易)’의 무대’라는 비판도 있지만 서구 중심의 다보스포럼에 비해 개방적이라는 호평도 있음(정상화, 2013).

- 제13차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Asia’s New Future: Identifying New Growth Divers)’를 주제로 2014년 4월 9일~11일에 열릴 예정임. 이번 제13차 보아오포럼은 31개의 세션과 4개의 라운드테이블, 7개의 대화(Dialogue), 9개의 비공개(closed-door) 세션, 그 밖에 야외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3개의 TV토론(Debate), 오·만찬 세션과 조찬모임, 밤 시간의 보아오살롱(Boao Salon)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됨. 세션의 주제들로는 △인터넷 금융 △자본시장의 문제와 해법 △중앙은행의 미래 △상해 자유무역실험지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미래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기후변화 △EU 개혁 어젠다 △중국과 미국: 아태지역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 △러시아-중국 에너지·금융 대화 △일본을 위한 신성장 전략 △APEC과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도시화 △공공외교와 국가이미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임. ‘남중국해: 원-원과 협력 모색’ 주제는 비공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임.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에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포럼과 같은 다보스포럼 스타일의 ‘망라형 종합포럼’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는 국제포럼이 있음

다. 국내의 국제포럼

-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포럼에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포럼과 같은 다보스포럼 스타일의 ‘망라형 종합포럼’이 있는가 하면,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는 국제포럼이 있음. 여기서는 매일경제신문의 세계지식포럼, SBS의 서울디지털포럼, 조선일보의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한국경제신문의 글로벌 인재포럼, 인천광역시가 주도하는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자 함.

1) 세계지식포럼

-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가 두뇌강국, 창조적 지식국가의 ‘비전코리아

**세계지식포럼에는
매년 50여 개국
2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를 포함해 모두
3,000여 명이 참석.
세계적인 기업가,
석학,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예측하고
기업경영 전략을
제언함**

아'를 내걸고 2000년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을 창설함.
- 세계지식포럼에는 매년 50여 개국 2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를 포함해 모두 3,0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음. 매년 10월에 세계적인 기업가, 석학,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예측하고 기업경영 전략을 제언함.

세계지식포럼은 2007년 '부의 창조와 아시아'를 주제로 내건 이래 '협력의 마법 & 아시아시대'(2008년), '원아시아 모멘텀, G20리더십 & 창조적 혁신'(2010) 등 아시아의 역할을 강조해옴. 제14회 세계지식포럼은 2013년 10월 15일~17일에 '원아시아 대변혁(One Asia Metamorphosis)'을 주제로 총 67개 세션이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진행됨.

2) 서울디지털포럼

○ SBS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혁신을 이뤄낼 영감을 공유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디지털포럼(Seoul Digital Forum)'을 2004년 창설함.

- 매년 5월에 T.I.M.E.(Technology, Information, Media and Entertainment) 산업과 주요 글로벌 이슈들을 선도하는 연사들을 초청, 범세계적인 지식 혁명과 산업의 변화 등을 논의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함. 메인세션과, 별도로 세부 주제에 대한 3개 심화세션으로 구성된 제10회 서울디지털포럼이 2013년 5월 2일~3일에 '초(超)협력-내일을 위한 솔루션'을 주제로 서울디큐브아트센터에서 개최됨.

3)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는 국가적 어젠다를 발굴하고 활로와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로, 2005년에 처음 열림.
- 동남아 쓰나미 사태에 대해 아시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ALC가 2005년 3월 3일~4일에 열림. 제2회 ALC는 2008년 2월 21일~22일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에 맞춰 '리더십과 변화'를 주제로 개최됨. 제3회 ALC(2012년 3월 6일~7일)는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제4회 ALC(2013년 3월 26~27일)는 '아시아의 새로운 과제: 착한 성장, 똑똑한 복지'를 주제로 진행됨. 2014년 3월 3일~4일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를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회 ALC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함(조선일보, 2014년 3월 5일 자).

4) 글로벌 인재포럼

○ 교육부와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활용을 위해 2006년 ‘글로벌 인재포럼(Global HR Forum)’을 창설함.

- 글로벌 인재포럼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의 해결을 글로벌 협업을 통한 창조적 인재 개발에서 찾음. 2013년 11월 5일~7일 제8회 글로벌 인재포럼이 ‘벽을 넘어서’를 주제로 각국 관계장관, 글로벌 기업 CEO 및 HR 총괄 부서장, 세계 우수대학 총장,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열림.

5)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은 아시아 및 세계 경제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로 주도로 2009년 창설됨.
-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재단의 주최로 매년 11월에 열리는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에는 아시아·태평양 10여 개국 300여 명의 학계·재계 인사 등이 참석하고 있음. 23개 세션으로 구성된 제5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이 2013년 11월 1일~2일에 ‘아시아 공동체: 이슈와 해법’을 주제로 인천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개최된 바 있음.

3. 제주포럼의 현황 및 과제

가. 제주포럼의 현황

- 제주포럼은 2001년 6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돼 격년제로 열리다가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약칭 ‘제주포럼)’으로 개칭, 매년 5월 마지막 주의 3일 동안(수·목·금)에 정례 개최되고 있음.
- 제1회 제주평화포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 및 안보협력을 위한 대안 모색과 함께 ‘세계평화의 섬 제주’ 건설을 위한 국내외 지지기반의 확보를 위해 2001년 6월 15일~17일에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림.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을 대주제로 내건 제1회 제주평화포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에 대한 특별논평을 함. 이듬해인 2001년 4월 12일~13일에는 ‘21세기 세계평화의 재검토와 평화의 확산’을 주제로 한 약식포럼(‘세미포럼’)이 개최됨.
- 2003년 10월 30일~11월 1일에 열린 제2회 제주평화포럼과 2007년 6월 21일~23일에 치러진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함. 2009년 8월 11일~13일에 개최된 제5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함. 2007년 제4회 제주평화

제주포럼은 2001년 6월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돼 격년제로 열리다가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약칭 ‘제주포럼)’으로 개칭, 매년 5월 마지막 주의 3일 동안(수·목·금)에 정례 개최되고 있음

**제주포럼에서 다루게
되는 어젠다 영역을
기존의 평화와 안보
위주에서 경제·환경·
문화·여성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종합포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참가 대상 지역도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넓힘**

포럼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을 위해, CSCE(유럽안보협력회의)/OSCE(유럽안보협력기구)를 탄생시킨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모델로 하는 ‘제주 프로세스(Jeju Process)’의 추진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음.

-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 출연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아시아의 다자협력, 세계평화의 섬 구현 등을 위한 연구와 교류·네트워킹의 거점 마련 차원에서 2006년 3월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2007년 제4회 포럼을 시작으로, 2013년 제8회 포럼까지 그동안 5차례의 제주포럼을 주관해 오고 있음.
- 제주포럼은 2011년 5월 27일~29일에 열린 제6회 포럼부터 격년 개최를 연례 개최로 바꾸면서 포럼의 이름도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개칭함. 제주포럼에서 다루게 되는 어젠다 영역을 기존의 평화와 안보 위주에서 경제·환경·문화·여성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해 종합포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참가 대상 지역도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넓힘.
- 2012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포럼 상설 사무국이 같은 해 12월에 제주포럼의 주관 기관인 제주평화연구원의 산하에 설치됨. 이에 따라 제주포럼의 추진 체계는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의제선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정비됨.
 - 현재 제주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평화재단·동아시아재단·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외교부·국토건설부·한국국제교류재단·동북아역사재단 등 20여 개 기관의 후원으로 치러짐. 제주포럼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직접 주제 개발 및 세션 운영에 나서는 콘도미니엄 운영 방식도 정착되고 있음. 제주포럼의 결과는 책자로 발간해 각계에 배포함.
- 2013년 5월 29일~31일에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제주포럼에는 49개국에서 정치·경제 지도자, 전·현직 각료, 학자, 외교관, 언론인 등 3,6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54개 세션으로 진행됨. 세부 주제들은 △외교·안보·국제협력 △경제·경영·개발·IT △환경·문화·여성·제주지역 이슈 등이었음.
- 올해 제9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설계(Designing New Asia)’를 주제로 5월 28일~30일에 열릴 예정임. 제9회 제주포럼에서는 외교

안보 · 경제경영 · 문화 · 여성 · 환경 · 지역개발 분야에서 모두 60여 개 세션과 세계지도자 세션, 특별세션 등이 기획되고 있음. 아래 <표 1>은 역대 제주포럼의 개요임.

<표 1> 역대 제주포럼의 개요

회차 및 개최일	주제 및 참가자	
제8회 포럼 2013.5.29~ 5.31	주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참가자	정홍원 국무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 호세 루이스 구테레스 동티모르 외교장관,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 프레다 미리클리스 전문직여성세계연맹 회장 등 49개국 3,672명 참석
제7회 포럼 2012.5.31~ 6.2	주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참가자	김황식 국무총리,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폴 키팅 전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한승수 전 총리 등 36개국 3100명 참석
제6회 포럼 2011.5.27~ 5.29	주제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참가자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자오지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제5회 포럼 2009.8.11~ 8.13	주제	“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참가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승수 국무총리, 존 하워드 전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제4회 포럼 2007.6.21~ 6.23	주제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 경험의 탐색”
	참가자	노무현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전 일본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제3회 포럼 2005.6.9~ 6.11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
	참가자	이해찬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제2회 포럼 2003.10.30~ 11.1	주제	“동북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
	참가자	노무현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세미포럼 2002.4.12~ 4.13	주제	“21세기 세계평화의 재검토와 평화의 확산”
	참가자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임동원 청와대 특보, 공로명 전 외교통상부장관, 국내외 정계학계 언론계 전문가 등 60여명 참석
제1회 포럼 2001.6.15~ 6.17	주제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참가자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올해 제9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설계
(Designing New
Asia)’를 대주제로
5월 28일~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제9회 제주포럼에서는
외교안보 · 경제경영 ·
문화 · 여성 · 환경 ·
지역개발 분야에서
모두 60여 개 세션과
세계지도자 세션,
특별세션 등이
기획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포럼인 제주포럼으로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 등에서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음

나. 제주포럼의 과제

- 앞의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2001년 제1회 포럼에는 9개국 300여 명이 참가한 데에 비해 2013년 제8회 포럼에는 49개국 3,600여 명이 참가한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제주포럼이 장족의 발전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음. 제주포럼이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과 같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포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음.
- 제주포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한 사이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하자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토론과 대화의 장으로 2001년에 창설됨. 제주포럼은 이처럼 초기에 ‘평화’를 화두로 던지고 격년제로 운영돼 오다, 10년 만인 2011년에 ‘평화’ 외에 ‘번영’을 또 하나의 모토로 내걸고 연례 개최라는 탈바꿈을 단행함. 이러한 탈바꿈의 바탕에는 ‘평화’라는 주제만을 가지고는 포럼에 대한 참여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아 포럼의 장기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었음. 연례화 단행은 격년 개최로 인해 포럼의 단절이 반복됨으로써 연속성과 이슈 장악 등에 적잖은 문제점이 노정됐기 때문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탈바꿈한 지 3년째가 되는 오늘날, 일각에서 제주포럼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임. 이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포럼인 제주포럼으로서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 등에서 특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음.
- 제주포럼은 제주의 MICE산업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창설 초기부터 재정적 지원을 해온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음. 다만 제주도민의 동참과 성원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다보스포럼이 시행하고 있는 ‘오픈포럼’ 형태의 세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포럼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종합포럼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의 관례화가 절실함. 이와 함께 제주포럼 기간에 맞춰 정부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방문한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제주포럼에 참석해 세계의 이목을 끌도록 하는 전략적 포석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4. 제주포럼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가. 다보스·보아오 포럼의 소프트파워적 함의

- 다보스포럼은 민간조직이면서도 세계의 평화와 공익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 다보스포럼이 표방하는 모토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헌신한다(Committed to improving the state of the world)’는 것임. 그동안 다보스포럼은 갈등 속에서 평화를 일궈내기 위한 소프트파워 전략적 행보로도 큰 명성을 얻음.
- 1988년 그리스와 터키가 에게 해를 사이에 두고 전쟁으로 치달자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투르구트 오잘 터키 총리를 초청, 다보스포럼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의 기틀을 마련한 ‘다보스 선언’은 유명함. 1989년 다보스에서 열린 남북한 최초의 장관급 회담, 독일 통일을 논의한 한스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간의 다보스 회담, 1992년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마무리하기 위한 남아공의 데클레르크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의 다보스 회합, 1994년 아라파트 PLO 의장과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다보스포럼에서 평화협상의 물꼬를 튼 일 등도 그 사례임. 2001년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하자 그 이듬해인 2002년의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가 아니라 뉴욕으로 장소를 옮겨 열린 적도 있음.
-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다보스 주(Davos Week)’라 부르며 집결해 열띤 취재 경쟁 속에 다보스포럼이 열리게 되면, 스위스는 최고위 인사들이 일시에 몰리는 데에 따른 경비와 보안 등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함. 스위스로서는 ‘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포럼 개최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 한껏 투사하게 됨. 막강한 네트워크 파워를 지닌 다보스포럼을 해마다 개최하는 호스트 국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스위스가 얻게 되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임. 스위스는 다보스포럼에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포럼외교’의 무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특전’까지 누리게 됨.
- 1970년대에 중국의 개혁개방을 민간기구 중 최초로 의제화하는 등 다보스포럼은 세계적인 ‘어젠다 세팅 플랫폼(agenda setting platform)’으로 자리 잡음. 이러한 다보스포럼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초청받아 참석한 것은 2010년 1월 제40차 다보스포럼에서의 일임.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20 정상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

**막강한 네트워크
파워를 지닌
다보스포럼을 해마다
개최하는 호스트
국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스위스가 얻게 되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임**

**다양한 국제포럼들도
자국 정부의 뒷받침
아래 세계적인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우리
정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포럼으로서
제주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함**

이 참석해 특별연설을 함. G20의 운영 방향과 과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다보스포럼의 당해 연도 주제(‘더 나은 세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건설하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의제였음. ‘어젠다 세팅 파워’가 큰 다보스포럼에서 던져진 화두가 뜨거운 반응을 얻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 분야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국가 브랜드의 제고로 이어지게 됨. 다보스포럼 자체가 소프트파워의 경연장이라 할 수 있음.

- 보아오포럼은 형식적으로는 비정부 조직인 보아오포럼 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여론 형성의 장임.
-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 2013년 제12차 보아오포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퍼스트레이디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참석함으로써 이 포럼을 국가 최고의 행사로 격을 높임. 중국은 외국의 정상들을 비롯해, 각 분야 요인들을 대거 ‘안방’에 불러들여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음. 1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다자외교의 장이 열렸고, 시진핑 주석은 참가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화려한 ‘포럼외교’를 펼쳤음. 이와 관련 취싱(曲星)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장이 “보아오포럼의 규모가 커지고 격이 높아진 것은 각국이 중국의 새 지도자와 접촉할 기회를 얻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한 것은 시사적임(연합뉴스, 2013년 4월 6일 자).
- 중국이 보아오포럼을 권위주의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전략을 뜻하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나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의 ‘화평발전(和平發展)’론, 유구한 중화명명 등 소프트파워의 확산을 위한 발판이자,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춘 국가 이미지를 심는 호기로 심분 활용하고 있는 점 등은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님.

나. 국가적 차원의 제주포럼 육성

- 한국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 이외에도, 프랑스의 ‘세계정책회의(World Policy Conference)’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등 다양한 국제포럼들도 자국 정부의 뒷받침 아래 세계적인 포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우리 정부가 공공외교 차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제포럼으로서 제주포럼의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을 함축함.
- ‘세계정책회의’는 프랑스의 국제관계연구소(IFRI)가 주관하는 심포지엄

으로, 2008년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의 후원 아래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제1차 회의 이래 유럽의 도시들을 전전하며 개최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정책토론의 장임.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매년 6월 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은 당면한 세계경제 이슈 등을 논의함.

- 2001년 창설된 제주포럼이 격년제로 개최돼 오다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연례 개최로 바꾼 주된 배경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에 따른 것임. 제주포럼은 연례화 이후 참가 대상과 어젠다의 폭을 크게 확대하는 등 국제종합포럼으로서의 새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
- 이러한 제주포럼의 현주소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제주포럼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정치, 기업, 문화 및 학계 대표의 토론 프로세스로 기능하고 있지만 그 위상이나 국제적 평판은 보아오포럼에 한참 못 미친다”(정상화, 2013)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 게 현실임. 앞으로 한국의 국가적 특성을 살린 참신한 포럼 개념을 재정립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절한 전략과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임. 우리가 보아오포럼에서 특히 본받아야 할 점은 중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육성 의지라는 지적이 있음. 국제사회의 공감과 호감을 사는 소프트파워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이 외교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전략적 수단이 됨.

다. 대통령의 제주포럼 참석 관례화

-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22일 제44차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창조경제와 기업을 정신’을 주제로 특별 개막 연설을 함. 다보스의 콩그레스센터에서 슈밥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창조경제를 국제사회에 소개했고, 질의응답시간에는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은 물론 동북아 주변국들에도 ‘대박’이 될 것임을 역설함. 이러한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참석자들에게 동시통역으로 전달됐으며 웹으로도 생방송 됨.
-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시리아 국제평화회담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것과 때를 맞춰 참석했으며, 이란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맞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의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도 참가함.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도 자리를

국제사회의 공감과 호감을 사는 소프트파워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이 외교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전략적 수단이 됨

**현재 국내외
국제포럼들 중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제주포럼에도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관례화할 필요가 있음**

함께함. 박 대통령의 연설회장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연합뉴스, 2014년 1월 22일 자).

- 박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의 꽃’으로 불리는 플리너리 세션에서 한국의 창조경제를 세계의 긍정적 재편 문제와 연계해 널리 알린 것 자체가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동시에, 해발 1,500m 고지에 위치해 날씨도 춥고 교통과 숙소마저 불편한 산골마을에 40여 명의 정상급 인사들을 포함, 100여 개국의 파워 엘리트 2,500여 명을 한자리에 모은 것 자체가 다보스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입증함. 중국의 국가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개막 연설을 함으로써 포럼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듯이, 현재 국내의 국제포럼들 중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에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종합포럼 성격의 제주포럼에도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관례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제주포럼을 브랜드 네이밍을 갖춘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포석이 될 뿐만 아니라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함.

라. 포럼외교의 활성화

-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 등에 정상들을 포함, 현직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이러한 포럼들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공공외교의 진일보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임. 예전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마련된 다자외교의 장을 통해 이슈들이 논의됐다면 이제는 국제포럼이 그런 기능을 상당부분 대체해 가는 경향을 보임. 이는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에 한계를 보여온 점도 작용한 것임. 포럼은 기업이나 NGO처럼 국제적 공론장에서 소외됐던 대상에게도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가 하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이들도 다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경계를 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아고라’와 같은 열린 공간을 제공함. 이처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간 논의보다 훨씬 다채로운 이슈를 수준을 달리하며 다룰 수 있는 점이야말로 포럼이 지닌 큰 장점임(문정인·이재영, 2014).
- 이러한 국제포럼에서는 공식 세션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행사가 마련돼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은 물론 네트워킹의 기회로 활용됨. 다보스포럼의 경우 공식 세션은 250개가량인 반면, 비공개의 경제지도자 회합을 뜻하는 IGWEL(Informal Gathering of World Economic Leaders) 등 비공식 행사는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

-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전경련 주최로 열린 ‘한국의 밤(Korea Night)’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세계 경제계 핵심인사들을 상대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서는 등 ‘막후의 포럼외교’도 갈수록 중시되고 있음.
-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다보스포럼과 같은 공공외교의 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국이 직접 국제적인 포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임을 감안, 한국도 이러한 포럼외교를 주도하는 차원에서 제주포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이를테면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제주포럼과 보아오포럼에 교차 참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전략적 지원이 요청됨.

마. 트랙1.5 형식의 가미

- 제주포럼은 본질적으로 ‘트랙2(track two)’의 민간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사점이 풍부한 논의 결과라도 정책에 직접 반영되기가 쉽지 않음. ‘트랙2’ 포럼은 왕왕 긴장감이 떨어지는 담론의 장으로 그치게 되는 한계를 지님. 또한 ‘트랙2’ 포럼의 참여인사들이 대체로 전직 중심이어서 정책 현장에 대한 거리감이 있게 되면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어려워짐. 현직 정상을 포함해 고위 인사 등의 참석이 많을수록 그 포럼의 영향력은 자연 커지기 마련임. 제주포럼의 경우 현직 정부 측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트랙1.5’ 형식을 가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교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의 공동주최로 2002년부터 매년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약칭 ‘제주 군축회의’)'는 전형적인 ‘트랙1.5’ 형식의 국제회의임.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연례 군축비확산회의인 이 ‘제주 군축회의’에는 유엔 관리 및 10여 개국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함. 이 회의에서는 당해 연도 군축비확산 분야의 핵심 현안 4~5개를 선정해 평가하고 토론함. 2013년 11월 14일~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에는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안젤라 케인 유엔 군축고위대표, 카를로 트레자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 의장, 모하메드 툴리키 유엔 대테러위원회(CTC) 의장, 그리고 한국·미국·중국·일본 등의 군축비확산 전문가 45명이 참석함. 이러한 ‘제주 군축회의’와 같은 트랙1.5 형식의 세션을 제주포럼에 다양하게 가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함.
- 현 정부의 외교정책의 큰 축을 이루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제주포럼을 활용할 수 있음. 초기에 참가국들이 재난 구호·원자력 안전·기후 변화 등 연성의제와 관련한 협력 사안에

제주포럼의 경우 현직 정부 측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트랙1.5’ 형식을 가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트랙1.5 형식의 회의는 정치적 색채가 얽은 휴양지인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만함. 이는 동북아 국가들이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데에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음. 이러한 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될 경우 제주포럼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임.

참고문헌

- 김상배(2009),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김상배 엮음, 파주: 도서출판 한울, pp.15-56.
- 김태환(2014), “21세기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 『JPI PeaceNet』, 2014-03.
- 문정인·이재영(2014), 『다보스 이야기』, 서울: 미래엔.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2008),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세계정치>, 29(1), 기획특집, 서울: 논형.
- 연합뉴스, 2014년 1월 22일 자; 2013년 4월 6일 자.
- 외교부 보도자료, 2006년 4월 21일 자.
- 정상화(2013), “보아오포럼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 『정세와 정책』, 2013년 5월 호, pp.21-24.
- 조선일보, 2014년 3월 5일 자.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09), 「뉴스레터」(2009.4.27.).
- 현대경제연구원(2014), “다보스포럼이 세계를 이끈다!” 『현안과 과제』, 14-02호 (2014.1.13.).
- Nye, Joseph S.(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홍수원 역, 『소프트파워』, 서울: 세종연구원.

<http://www.aecforum.net/>

<http://www.boaforum.org/>

<http://www.ghrforum.org/>

<http://www.seouldigitalforum.org/kr/>

<http://www.weforum.org/>

<http://www.wkforum.org/>

❖ 저자 약력

■ 진행남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경희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음.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공공외교, 남북관계, 동아시아 다자협력(제주프로세스), 한류와 문화공동체 등임. 최근 연구로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북한의 한류현상과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방송매체의 영향”,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 “한국의 미디어 공공외교의 강화 방안”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낙훈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